

지역 소식통

부안군, 추석 연휴기간
응급진료체계 가동

부안군은 추석 연휴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응급환자 진료와 대량 환자 발생에 대비하고자 추석 연휴 응급진료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응급의료기관인 부안성모병원은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추석 연휴기간 당직 병의원과 약국은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군민들의 진료 및 약품 구입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하기 어려운 심야시간대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등록업소(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에서 소화제, 해열진통제 등 안전상비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추석 연휴 기간 운영하는 의료기관·약국 정보는 군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응급의료 포털·120 보건복지센터·119구급상황관리센터서 안내받을 수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도내 세외수입 운영
평가 2년 연속 '최우수상'

정읍시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한 '2024년 세외수입 운영 실적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 포상금 500만원을 받았다.

지난 4일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2024년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시는 한 해 동안 추진한 세외수입 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시는 2년 연속 세외수입 운영실적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2023년 결산기준 세외수입 징수를 과태료 징수실적 등을 포함한 8개 분야 10개 지표를 기준으로 이뤄졌다. 시는 안정적인 세외수입 관리를 통해 지방 재정의 자립도를 높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이번 발표대회에서 박종덕 세입관리팀장은 "광역 생활자원 회수센터 운영으로 세외수입 증대" 사례를 발표해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이뤘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읍주민행복센터, 신청사 업무 개시

행정기능·가족돌봄 등 폭넓은 대민 행정서비스...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고창군 고창읍이 9일 고창읍주민행복센터 신청사로 이전하고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978년 준공된 이후 기존 고창읍사무소는 시설노후 및 공간 협소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해 왔다.

이에 고창읍주민행복센터는 2019년 지역밀착형 생활SOC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189억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지상 3층(지하층), 연면적은 4,686㎡ 규모로 건축되었다.

고창읍 주민행복센터는 층별 주요 시설로는 △지상 1층에는 민원실 등 고창읍사무소가 입주하고, △2층은 사

무공간을 포함해 대회의실 등으로 활용하고 △3층에는 가족센터가 입주해 공동육아와 가족상담 교육 등 가족 돌봄의 편의를 제공한다.

또한 고창읍주민행복센터(구 고창읍사무소)는 오는 9월 9일(월)부터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

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고창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점심시간으로 정해진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휴무하는 제도로 관내 13개 면 민원실은 2021년 12월부터 점심시간 휴무를 시행하고 있다.

읍사무소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하고 민원인전용 컴퓨터를 마련해 민원인이 정부24에 접속하여 손쉽게 민원서류를 발급토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길수 고창읍장은 "신축 조성된 고창읍주민행복센터는 더 나은 행정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창군은 지난 7월 1일부터 관내 8개소에서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의 84종의 서류에 대해 수수료를 전면 무료 시행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은 지난 5일 (사)국민독서문화진흥회가 주최하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후원하는 '제9회 대한민국 책 읽는 지자체 대상'을 수상했다.

"고창을 도서관 성지로 만들 것"

고창군, '2024 대한민국 책 읽는 지자체 대상' 수상

고창군은 지난 5일 (사)국민독서문화진흥회가 주최하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후원하는 '제9회 대한민국 책 읽는 지자체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책 읽는 지자체 대상'은 (사)국민독서문화진흥회에서 '책 읽는 나라' 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지난 2016년부터 독서 문화 형성 및 책 읽는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한 우수 지자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매년 전국에서 6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는데, 올해는 고창군을 포함해 전라남도 완도군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충청남도 연기군, 경기도 연천군, 충청북도 증평군 등이 선정되었다.

고창군은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이야기가 있는 코딩 등 각종 공모사업 추진 △중장년층을 위한 연중 상설강좌 및 인문학 강좌 운영 △작은도서관 1만 1동이리 지원 △고창형윤석열도서관 건립 등 책 읽는 도시 고창 만들기에 노력하며 다양한 독서진흥 사업을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군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독서환경을 조성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며 "2025년 고창형윤석열도서관 건립을 완료해 고창을 전국에서 찾는 도서관 성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평생학습관 개관... 시민교육 평생교육 활성화

시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정읍시는 지난 6일 평생학습관을 개관하고 시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평생학습도시 으뜸 정읍을 실현한다.

이날 열린 개관식에는 이학수 시장과 유준병 국회의원, 박일 시의회의장, 최종훈 교육장 전북과대학 이용준 총장 등 지역 인사와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해 평생학습관의 새 출발을 축하했다.

개관식은 식전공연, 경과보고, 감사패 수여, 축사, 테이프커팅,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새 평생학습관 1층에는 시민을 위한 강의실, 2층에는 중고등학생을 위한 강의실, 3층에는 청년 취업 준비생을 위한 강의실이 마련됐다. 별관에는 요리, 목공 도예 등 특별 프로그램을 위한 실습실이 조성돼 시민들의 다양한



학습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와 같은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평생학습관은 단순

히 공부하는 장소가 아니라 시민들의 삶을 나누고 시민들과 함께 성장하는 배움의 메카가 될 것을 확신한다"며 "정읍시는 행복한 시민과 지역 인재양성을 주도하는 제도와의 평생학습도시 시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백산 다목적체육센터 준공

부안군은 지난 6일 권익현 부안군수와 부안군의회 의원 전동일 부안군체육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산 다목적체육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개관한 백산다목적체육센터는 지난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총사업비 58억원을 투입해, 지상1층 연면적 986.45㎡ 규모로 실내체육관 사무실 샤워실 및 화장실을 배치하고 소방설비, 냉·난방설비, 방송

설비 등을 갖추어 시설 이용에 최적화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부안군 8개 지역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은 권익현 부안군수가 민선 7기부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안을 줄포 행안 다목적체육센터 준공에 이어 네 번째로 체육센터를 준공하게 된 것이다.

권익현 군수는 "이번에 개관한 백산 다목적체육센터가 체육활동을 넘어 주민 간 소통과 화합의 복합문화 공간으로 활용되길 바란다"며 "군민 누구



나 언제 어디서나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반대비체육센터, 부안·줄포·행안·백산 다목적체육센터를 준공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수요자 참여 식량작물 특성화 사업 현장평가회

정읍시는 지난 5일 덕천면 농업인상담소 등에서 농업인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요자 참여 식량작물 특성화 시범사업 현장평가회를 열었다.

수요자 참여 식량작물 특성화 시범사업은 공 재배와 가공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2년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올해는 1년차로, 논공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청국장 등 가공에 적합한 품종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다. '전종' 품종을 비롯해 '장풍', '신유호', '강한', '다드립' 등 9개 신품종이 시범 재배되고 있으며, 수확 후 정류나 두부 가공에 적합한 품종을 평가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 평가회는 착륙기 시점에 맞춰 기상과 작황 분석을 통해 새로운 품종들의 특성을 공유하고, 후반기 관리 방안에 대한 기술을 전수하는 자리였다. 현지 포장에서 품종별로 다양한 재배 유형을 비교 분석하고, 재배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토론했으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두영농조합법인의 대표는 "현장에서 논공 재배에 대한 다양한 기술을 정립할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품종별 재배 특성, 파종량 시비 방법 등 세부적인 기술 공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공 협력업체인 마미팜농민농업 대표는 청국장 제조에 적합한 신품종에 대해 실증 및 평가 작업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